

부끄러움 없는 시대... 별 같은 삶과 詩 '촛불'이 되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소재한 운동주 문학관.



운동주 올해 탄생 100주년... 삶·작품세계 조명 활발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 하듯
뻔뻔한 세상에 던지는 깊은 울림**

부끄러움이 실종된 시대 다시 생각하는 '서시'
지난 11월 26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1회 운동주 서시 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날 서울에는 송이눈이 내렸다. 대체로운 행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행사장과 가까운 광화문에서는 190만 명의 시민들이 5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었다.

그날 시상식장에 모인 사람들이나 촛불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했던 시인 운동주와, 부끄러움은커녕 염지도 없이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을 떠올리며 한없는 자괴감과 씩씩함에 빼졌을 터다.

옛 선인들은 '염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염치는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염치는 더 이상 지켜야 할 덕목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물질적 풍요가 성공의 잣대가 되어버린 작금에는 염치가 들어설 틈이 없다. 염치가 실종된 시대에 운동주의 '서시'는 '죽비'처럼 우리를 향해 준엄히 꾸짖는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느냐'고.

그날 '서시문학상' 시상식이 열린던 날, 행사장 우리장에는 수많은 물방울이 맺혔다. 녹은 눈발이 엉겨 붙은 것인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방울이었는데, 그것은 아마 환생한 운동주 시인의 눈망울이었던지 모른다. 그렇게 운동주 시인은 우리를 걸으며 다가와 맑고 또렷한 눈으로 세상을 비추는 하나의 '촛불'이 되었다.



▶광양 망덕포구 인근에 있는 정병욱 가족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원고가 보관돼 있던 장소다.

SG 멀티케어마스크 Multi Care Mask 10-2015-0161983 특허출원

황사 잡는 자외선 마스크

자외선 차단은 기본 황사/미세먼지/유형성바이러스까지 동시차단
자외선 마스크와 필터마스크가 하나로!!

5층의 원방형 매직라인

• 고주파 처리로 형성된 5층의 원방형 1mm매직라인이 김서림 방지와 마스크에 남을수 있는 입냄새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다.

간편 필터 교체사용

• 리필이 용이한필터마스크는 벨크로 부착방식으로 탈부착을 쉽게 할 수 있어 항상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청허가 (KF80 인증)

미세먼지 차단

식약청허가 KF80인증 99.9% 완벽차단

• 4겹의 초극세 필터 기술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 황사, 입자성유해물질, 유형성바이러스로부터 호흡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양면 벨크로 부착모습

• 자외선 차단 원단 안쪽벨크로 부위에 필터를 부착하고 사용자의 얼굴에 맞게 코지지대를 밀착하여 사용한다.

판매가 25,000원 → **18,500원** (배송료무료)

Mask Color: Blue, Pink, Violet, Green

SG 멀티케어마스크 "필터마스크 3매입 내장"

운동주 전국은 추모 물결

2017년은 운동주 시인 (1917~1945)이 탄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운동주의 고향은 만주 북간도다. 어릴 적 아명이었던 해환(海煥)은 "해저편 빛나게 살라"는 뜻으로 부친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한다.

탄생 100돌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그의 순결한 시심과 티 없는 나라 사랑 때문이다. 100년은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 다양한 관점에서 운동주의 문학과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운동주문학관은 운동주의 시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사진자료, 친필원고 영인본이 비치돼 있다. 이곳에는 용정 생가에서 가져온 '우물들'이 전시돼 있어 시인을 회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혹자는 이 '우물들'이 "산모퉁이를 돌아 노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으로 시작되는 '자화상'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말한다.

남도에도 운동주 문학의 자취가 응결된 공간이 있다. 광양은 시인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필사본이 보관돼 있던, 문학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지역이다. 전북 진안에서 발원한 섬진강이 550리를 내달려 비로소 몸을 푸는 곳이 광양의 망덕포구다.

포구 인근에 자리한 정병욱 옛 가옥(등록문화재 341호)은 오늘의 운동주를 있게 한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동주와 정병욱(1922~1985)의 인연은, 정병욱이 1940년 연희전문에 입학하면서다. 두 사람은 평소 문학을 이야기하며 각별한 우정을 쌓는다. 얼마 후 운동주는 일본 유학을 앞두고 시집을 펴낼 계획이었으나 지도교수인 이양하 선생 만류로 뜻을 접는다. 일제의 탄압을 우려했던 때문이다. 운동주는 필사본 3권을 만들어 1권은 이양하 교수에게, 1권은 후배 정병욱에게, 마지막 1권은 일본으로 가져간다.

그러나 운동주는 일본 교토 도시사대학 재학 중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된다. 모진 고문 끝에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형무소에서 운명한다. 그 사이 정병욱도 징용영장을 받는다. 그는 징집 직전 망덕포구 고향집에 들러 어머니에게 운동주의 시 필사본을 맡긴다. 해방과 함께 귀국한 정병욱은 운동주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고, 어머니가 고향집 마루바닥 아래에 묻은 향아리를 떠올린다. 이 필사본에는 '서시', '별해는 밤' 등 운동주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담겨 있다. 마침내 1948년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세상에 나오기에 이른다.

서울 운동주문학관
문학계 조기 개최
사진·친필원고 영인본
용정 생가 우물들 전시

광양시 추모음악회... 中·日 행사 정병욱 가옥에 유고 시집 기념관·뮤지컬 등 추진도

이처럼 1920년대 지어진 정병욱가옥에는 문학적, 건축사적, 역사적 의미가 깃들여 있다. 아마 정병욱은 섬진강 망덕 포구를 바라보며 운동주의 '별해는 밤'을 수없이 외왔을 것이다.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광양시는 올해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8월 즈음에 운동주 심포지엄, 추모음악회, 시립합창단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히 올해는 일본과 중국에 소재하는 운동주 관련 추모 단체들과 연계해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문수 문화관광과장은 "지난 8월에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그의 육촌동생이자 과양시 홍보대사인 가수 윤희영의 '통기타 인생 50주년'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며 "운동주 시노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인을 기렸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민간 차원에서 운동주 시인을 기리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10월에 창립된 '동주사랑별밤모임'은 '시나무 공원 조성'을 위한 기부금 모금 운동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운동주 시인 기념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광양시는 운동주기념관, 추모공원, 운영주 음악창작소 건립과 운동주뮤지컬, 유희영세시봉뮤지컬 등을 제작한다는 복안이다. 물론 이 같은 사업은 타당성 여부를 거쳐 추진된다.

광주일보와 함께 서시문학상을 공동 제정한 계간 '시산맥'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북간도에 소재하는 시인 생가 방문, 기념 시집 발간,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해 시인의 시정신과 생을 조명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에 소재한 운동주문학관 역시 100주년을 맞아 운동주 문학제를 개최한다. 심정구 서울문화재단 주임은 "매년 9월에 열어왔던 문학제를 앞당겨 운동주문학관과 시인의 언덕 일대에서 시화공모전, 창작음악제, 강연 등 다양한 추모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